

2006 7 월 호 제376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7월호

발행일 : 2006. 7.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련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홍정욱

비매품

주부교실

2006
통권 제376호

7

생각해봅시다	4	아날로그 세대의 변명 / 함인희
실태조사	6	고등학생 소비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8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
소비자경보	11	노인사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소비자정보	12	“펜션(농어촌민박)” 이용 불만, 이렇게 해결하세요!
고발사례	14	소비자의 소리 /곽정자
알아봅시다	16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하려면?
에세이	18	유칼립투스 나뭇잎 하나 / 서영은
생활정보	20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규정
소비자뉴스	22	수돗물 대장균 검출시 주민에 공개키로
식품뉴스	24	통조림, 개봉 뒤 시간 두고 드세요
여성뉴스	26	여성가족부, ‘아기 돌보미’ 사업 실시
음식이야기	28	여름철 올바른 식품 보관법
가정요리	30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요리
건강정보	32	피서지에서 유용한 응급 처치법
여행정보	34	잘 갔다 온 단 한번의 여행, 세계일주 부럽지 않다
독후감	36	오만과 편견 / 김은주
문학산책	38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소식	39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시판	51	주부대학·주부대학원 방학

〈표지사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경기도지부, 06. 6.19), 엄마와 함께하는 농촌체험(대구광역시지부, 06. 7. 7)〉



아날로그 세대의 변명

함 인 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교수

뻘속 까지 아날로그 세대인 나는 가끔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건 아닐까...’ 비감에 젖곤 한다. 지난 학기 강의실에서 경험한 일이다.

“전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 지금의 중앙청 앞에서 전차를 타고 종로를 간 적이 있어요. 땅 속으로 다니는 전철이 아니라 땅 위로 다니는 전차를 타 보았지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하는 이야기가 “그럼 교수님은 김두한과 같은 시대에 살았었나요?” 순간 강의실엔 웃음이 번졌지만 나 자신은 매우 당혹스러웠다. 학생들이 느끼는 세대 간 거리감이 이 보다 더 확연할 순 없었기 때문이다.

덕분인가, 솔직히 요즘의 디지털 세대를 이해하는 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교수님! 왜 자리에 안 계시죠? 휴대폰 번호 남기니 돌아오면 연락 주십시오.’ 연구실 전화 응답기에 남겨진 신입생의 메시지를, 당당한 솔직함으로 받아들여야할지 버릇없는 무례함으로 무시해야할지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요, ‘취직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으니 과제물을 줄여 주십시오’ 하는 고학년의 요구 또한 교육적 가치를 앞세워 물리쳐야할지 청년실업의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이해해야 할지 종종 기로에 서곤 한다.

우리 집 부엌엔 아직도 손때 묻은 주전자가 떡 버티고 있다. 스위치를 올린 후 30초 이내에 팔팔물이 끓는 전기 포트의 편리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주전자를 못내 고집하는 건 잠시일지라도 물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여유로움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KTX의 속도감보다 새마을호의 쉬어감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게고.

“마지막 편지 세대”로서 대학에 갓 들어가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랑의 감정에 어리둥절해 하던 시절,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하려나 망설이다 보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곤 했다. 막상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써보긴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휴지통에 버리기를 수차례. 겨우 편지봉투에 상대방 주소까지 써 놓고 나면 다시 편지를 부칠까 말까 망설이길 꼬박 열흘. 드디어 책가방 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겨진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들켜버린 데 대한 부끄러움과 “손상 받은 여자의 자존심”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제나 저제나 답장 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던 아날로그 세대의 정서를 요즘 디지털 세대는 촌스럽다 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른 책 [단순하게 살아라]를 되새기노라면, 아날로그 세대로선 상당한 위로와 격려가 된다. 이야기의 요지인 즉, 세상일을 분류해 보면 대략 ‘중요하고도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일’ 그리고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범주로 나누어진단다. 한데 우리네 삶을 곰곰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곤 한다는 것이다.

대세에 지장을 주는 일도 아니요 지금 하지 않는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일에 늘 쫓기듯이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진대, 이제부터 진정 중요한데 정작 급하진 않은 일에 투자하라는 것이 작가의 권유이다.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 그건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 한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쯤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다. 산책을 해도 좋고, 명상에 잠겨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독서삼매에 빠져도 좋고, 정말 하릴없이 앉아있어도 좋으니, 진정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요즘처럼 삶의 속도가 멀미를 느낄 만큼 빠른 세상에서, 저마다 “나보다 안 바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외치는 세상에서, 새삼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며 인생의 의미를 곱씹어 보라 하니 무슨 생똥맞은 소리인가,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최대빈곤국인 방글라데시라는 사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북유럽에 집중해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곧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지 않음은 다행이다. 물론 부자라 해서 모두

불행한 건 아니요, 가난하다 해서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다. 더불어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풍요로움이 제로섬(zero sum) 관계에 있어,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작아진다고 볼 순 없다. 다만 물질적 풍요로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다보면 정신적 여유를 상실해가는 경향이 자주 나타남을 기억해야할 것 같다.

이제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소신껏 휴가를 즐기기도 남들 눈치 보기 바쁘다 보니 “무늬만” 휴가로 포장한 채, 돌아오는 길엔 예기치 않았던 휴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된다. “열심히 일한 당신 신용카드 쓰러 떠나라”는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휴가는 늘 주머니 사정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요, 항상 새롭고 보다 자극적인 휴가를 찾아 헤매는 한 휴가의 뒤끝은 공허감과 쓸쓸함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다. 주 5일제 근무 정착에 힘입어 휴가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 친근하게 자리한 만큼, 격조와 품위 그리고 멋과 여유를 담은 “쉼(休)의 문화”를 우리네 삶 속에 밀착시킬 일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요 저술가인 스코트 펙의 글에 등장하는 대목 하나. 그는 강연 말미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그 때마다 유사한 반응이 나오곤 하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오된 집단일수록 “당신이 알 바 아니요(None of your business)”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집단일수록 오랜 시간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나 자신,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가족”이란 답을 써 내더라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등 떠밀려 살기보다, 방향기를 잡고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봄은 어떨는지... ■

청소년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경제관념 희박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경제 지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경북 도지부는 지난 6월 구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소비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자 했다.

◆ 청소년 용돈 관리 능력 매우 부족, 지출내역 기록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 92.2%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경우(49.5%)와 수시로 용돈을 받는 경우(49.2%)가 대부분이었다.

월 평균 용돈의 규모는 5만원 미만이 62.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25.5%나 되었다. 용돈 지출은 주로 군것질(47.5), 옷 구입비(18.8%), 교통비(18.2%), 오락비(8.7%)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군것질 비용으로, 남학생의 경우 오락비용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어려움 없이 수시로 용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85%가 용돈의 지출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를 위해서는 용돈기입장 교육과 함께 용돈기록을 권장해 습관화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휴대폰과 컴퓨터 대부분 갖고 있고, 품질보다는 디자인 중요시해 과소비 조장

학생들의 일상용품 소유정도를 보면 휴대폰(88.8%)과 컴퓨터(95.7%)는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고, 3만원 이상을 휴대폰 요금으로 지불하는 학생이 43.2%나 되었다.

학생들의 카드 소유 여부 조사 결과, 99.2%인 대부분의 학생이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용사회에서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얻게 되는 '개인 신용'이 바로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생들 스스로 과소비라고 생각되는 소비품목으로 옷(42.7%), 패스트푸드(21.3%), 핸드폰(17%) 순으로 응답했으며, 물건을 구입할 때 품질이나 가격보다는 디자인(54.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소비 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새로운 청소년 문화코드로 등장한 '생일잔치' 비용에 부담 느껴

최근 들어 청소년 사이에 비중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생일잔치다. 서로의 생일날 1만원~5만원 미만의 선물을 챙겨주는 학생이 47.8%로 가장 높았고, 생일잔치 비용은 67.9%가 5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5.9%나 되었다. 주로 생일잔치 비용 충당을 부모님으로부터 하는 학생이 50.8%로 생일잔치에 대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생일잔치를 하는 장소로 청소년 유흥시설인 '술집'이 27.3%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점' 26.3%, '집' (23.5%) 등으로 조사되어 청소년 유흥시설 이용 실태 파악 및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었다.

◆ 과소비 문제점 알고 있지만, 충동구매 성향은 여전히 높아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소비유형의 문제점

으로 과소비(42.3%)가 가장 높았으며, 사치(22.7%), 외제선호(22%) 순이었다.

유명상표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다소 비싸더라도 유명상표를 구입하겠다는 '구입하겠다' 31.3%, '구입하지 않겠다' 47.5%, '모르겠다' 21.%로 응답해 유명상표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능력을 고려치 않고 무리해서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8%로 낮게 조사되었지만, 구입계획에 없던 상품도 마음에 들면 구입하는 충동성 구매를 했던 학생이 55.3%나 되어 충동구매 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구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고등학생 소비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지난해 말 신용회복위원회가 전국 고교생들의 소비행동을 조사한 결과와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공통적으로 모방소비, 과소비, 충동구매 성향이 높았고 용돈관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경제 지식 수준이 낮은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용돈기입장 쓰기와 정기적으로 저금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경북도지부〉

표시·광고 허위 및 과장 여전하고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차이도 심해

최근 건강 및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인해 체형이나 피부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불만의 접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지난 5월 17일~26일까지 서울 20개구 소재의 체형 및 피부관리 업소 84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실태를 파악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체형 및 피부 관리업은 현재 특별한 자격증 없이도 미용업에 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영업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소 간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차이가 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의 차이도 매우 심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쉽지 않다.

특히 계약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표시·광고나 중요 정보제공의 미흡함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서울시내 20개구 소재의 총 84개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에서 수거된 30개 업소의 광고지 또는 설명서의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 품질, 성능, 효능 등 허위 및 과장 36.7%

단기간에·최소의 저렴한 비용으로·최대의 효과를 주장하거나, 당뇨병·고혈압·중풍·관절염·신장 기능 등 특정 성인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주장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효능”을 표시하거나, 편안히 누워만 있어도 살이 빠지거나·줄이고 싶은 모든 부위를 원하는 부위만 골라 손쉽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

2. 사업자 자신에 대한 광고가 허위 및 과장 23.3%

일반적인 성공 사례 제시나 선진 외국과의 기술제휴 및 기술이전의 주장·외국 전문가에 의한 개발 주장 및 상관관계 설명 없이 특정 명문대학 연구소 명 기재·특정기관(언론)의 인정 주장·특정 집단(연예인)에 대한 전문관리 주장 등 사업자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표시 및 광고로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내용이 많았다.

3.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호 20%

최신 시설의 무료이용 서비스·원가제공·효과가 없을 때 전액환불·최저가격·최고 만족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시 광고 내용과 달랐다.

4. 제품 및 용역의 특징 허위 및 과장 20.0%

“최신의·세계적 수준의·최첨단·한국 최초의·한국 전통의” 등과 같이 서비스의 특징을 사실 진위와 관계없이 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내용이 많았다.

5. 사용법·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에 관한 허위 및 미표시 16.7%

아무런 주의사항이나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음을 표시하여 무조건 안전성을 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

자의 판단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요정보 제공 실태

1.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 내용 미흡해 소비자 인지 어려워

69개 업소(82.1%)에서 표시(제공)되고 있었으나 15개 업소(27.8%)에서는 표시(제공)되고 있지 않아, 명함에 표시된 업소 명만 보고는 어느 종류의 서비스업인지 인지하기 어려웠다.

표시(제공) 방법은 광고지(또는 설명서)나 명함을 이용한 경우(64개 업소 : 76.2%)가 가장 많았으며, 업소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는 곳은 5개 업소(6.0%)였다.

2. 요금체계 제공 : 계약 면담시 구두로 요금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69.0%

요금체계를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는 곳은 26개 업소(31.0%)였으며 대부분(58개 업소 : 69.0%) 표시(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면담 시 구두로 제시하고 있었다.

요금체계의 표시(제공) 방법은 업소 내에 가격표를 비치 또는 벽면에 게시하거나(18개업소 : 21.4%), 광고지(설명서)에 기재(8개업소 : 9.5%)하고 있었다.

3. 중도해약 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의 제 공, 환불기준 표시한 곳 없고, 사업자 임의로 환불기준 정해

중도 해약시 환불가능 여부를 표시한 업소는 한 곳도 없었으나(0%), 구두상으로 중도 해약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한 업소는 42개 업소(50%)였고 나머지 42개 업소(50%)는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중도 해약시의 환불기준을 표시한 곳도 한 곳도 없었으며(0%), 구두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한 42개 업소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의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0%) 대체로 환불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계약 후 1개월~6개월 사이의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효과가 없을 때 등의 막연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4. 계약서 및 서비스 가격 계약서 교부하는 곳 없고, 가격도 천차만별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 곳은 없었으며, 대부분 사업자측이 소비자의 개인 신상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보면, 일반 피부 관리비의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서비스 가격을 사전 계

시하기보다는 계약시 구두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 및 결론

현재 체형 및 피부관리업의 개업을 위해서는 동종 업계 협회에서의 민간 자격증 부여제도가 있을 뿐, 국가 차원의 공인된 특별한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용업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으로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청구와 환불 및 배상 요구에 대한 거절 등에 대한 관련 규정 부재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당국은 당해 업소에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 및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서비스 이용시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명렬 / 본회 소비자보호국장>

노인사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이 사기꾼의 과잉친절 및 유혹제공 등의 미끼에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방지 홍보 리플렛과 교육 자료를 발간 배포했다. 다음은 홍보 내용 중 '노인상대 사기의 10가지 대표적 유형' 과 그 피해 예방법이다.

노인상대 사기의 10가지 유형,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 ① 연예인 초청공연을 내세우거나 여흥, 안마 등을 제공한 후 저가식품을 고가로 판매하기
- ② 관광버스로 제품공장을 찾아가거나, 임대건물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고가의 식품·약품 주문서를 받아 택배로 보내기
- ③ 공항이나 역 대합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면 목걸이 등 귀중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면서 목걸이 등 요금을 지로로 청구하기
- ④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관광 온천을 싼 값에 구경시켜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비싸게 팔기
- ⑤ 전화로 무료 여행권이 당첨되었다고 한 후 카드로 대금 청구하기
- ⑥ 고수의 보장 투자 또는 불법다단계 회사 투자 유혹을 한 후 목돈을 챙겨 도망가기
- ⑦ 기관원을 사칭, 가스안전 점검을 한다고 찾아와서는 비싼 제품 판매하기
- ⑧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담당공무원을 잘 안다고 속여 기

초생활 생계비 또는 의료급여를 받게 해 준다고 접근하여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돈을 뜯어내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준다고 접수비를 받아 챙기기

⑨ 도시에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위급상황을 연출하여 지방에 있는 노인에게 합의금을 송금토록 한 후 가로채기

⑩ 공원, 휴양지 등에서 음료수 등을 미끼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하거나 성매매 유혹

사기에 유혹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 ① “아니오”라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힌다.
- ② 보건복지콜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의 전화 129”에 궁금증을 물어본다.
- ③ 주변 이웃(이장, 통장, 경로당, 면동사무소, 대한노인회 등)에 물어본다.
- ④ 조심을 했는데도 거짓 친절에 속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112),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고발하도록 한다. ■



“펜션(농어촌민박)” 이용 불만, 이렇게 해결하세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펜션(농어촌민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펜션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펜션 이용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농림부가 규정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연면적 45평('05.11이전 시설은 객실 7실 규모)미만의 시설로, 주로 “펜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휴가철이 되면서 펜션 계약시 이용료 외 추가요금 요구, 예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사례 및 대응법

- ▶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선지급한 후 기상악화, 신체이상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데 펜션 운영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성수기임을 핑계로 보상을 요구할 때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는 예약일 5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는 예약일 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 요금의 10~30%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 ▶ 예약누락, 계약내용 불이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음 기회에 이용하라며 보상을 거부할 때
- 사용 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 요금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 해당 시·도 및 시·군, 또는 경찰(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도록 한다.

※ 계약금 등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보상자체가 어렵다.

계약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펜션의 예약·이용은 개인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 시·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피해확산방지는 물론이고 보상도 용이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계약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약시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곳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보상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약을 자제한다.
- 인터넷 예약시 가급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대형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한다.
- 계약 전, 펜션의 사업자등록여부·계약내용 등을 확인한다.
- 펜션 사업자가 마련·운영 중인 이용약관이 있는 경우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하도록 한다.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알아두세요!

재정경제부는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등과 같은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다.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 3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소리

새 차 구입했으나, 바퀴 편 마모·펜더 도색·엔진볼트 교체 흔적 등 하자가 있어 환급처리

내용 김성택(대전시 동구효동)씨는 2006년 5월 11일 현대자동차의 테라칸을 400만원 할인 받은 2,625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타이어의 편마모 현상과 문짝 4개가 제대로 맞지 않아 차량 인도 후 이틀 뒤에 현대자동차 마전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동차 펜더(fender)가 도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울산 현대자동차 팀장으로부터 도색된 사실이 재확인되었지만, 도색된 상태에서는 출고 될 수 없다며 출고 이후인 금산에서 도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만 남기로 돌아갔다.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정비소에서 면밀하게 확인 점검을 받아보니 문짝 4개가 맞지 않고 엔진볼트 교체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비업체측에서는 현대자동차와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차량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확인서 작성은 회피하였다.

현대자동차 금산영업소자오가 판매자도 문제된 곳에 대한 철저한 수리로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소비자 본인은 받아드릴 수 없으며 현재 이 문제로 차량 등록이 지연되어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다.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 2005-21호)자동차관련규정에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 하자 포함)에는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고 우송토록 한 후, 현대자동차본사 담당부서와 통화하여 환급 처리하는 것으로 중재하였고, 단 등록비는 현대자동차 금산영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A/S 의뢰한 단말기 대리점에서 분실, 대리점에서 대여폰을 주어 손해보상 청구

내용 임중혁(구미시 황상동)씨는 2005년 10월에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가 5차례의 하자 발생으로 구입했던 대리점에 A/S 요청하였다. 기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A/S센터에 전화하였더니 A/S센터에서는 수리해서 대리점에 보냈다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받지 못했이라며, 가격대가 비슷한 대여 폰을 주었다. A/S센터에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관련규정에 의해 환불해준다고 하나 단말기가 없어 처리가 안 된다.

사업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 보상청구 하고 싶다.

처리 대리점과 A/S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이므로 손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에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분실된 단말기의 가격대와 비슷한 기종의 새 휴대폰으로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이후 소비자가 대여폰은 반납하는 것으로 합의 보상 처리하였다.

포장이사 도중 고가의 명품 도자기 (구입가150만원) 분실 피해

내용 손상화(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씨는 2주 전에 고려 골든 박스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사 당일 15년 전에 구입한 고가의 명품 도자기(구입당시가격 150만원)제품을 업체 팀장에게 별도로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팀장 본인이 박스에 직접 포장을 하였고 만약 분실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이사 다음날 도자기가 분실된 것을 알고 이사 업체 팀장에게 배상을 청구하였더니 영세사업자라며 계속 회피를 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이사 업체에 문제의 분실된 도자기에 대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현재시가로 120만원 해주겠다고 하여 소비자와 협의 처리 하였다.

수리한 자동차부품 택배사의 부주의로 파손, 배상 요구에 억장처리

내용 김준태(김천시 신음동)씨는 2006년 6월 8일 서울소재 국제카센터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리하여 택배로 받기로 하였는데 현대택배에서 운송도중 부품이 파손되었다. 항의하니 파손된 부품을 인정하고 다른 부품을 보내준다고 하여 받아보니 주문한 제품보다 질이 떨어져서 다시 반송하고, 본인제품을 수리해 주든지, 동일한 상품을 배상 요구했으나 지연시키고 있다.

처리 택배 물 운송 도중 파손 되었을 경우 제품 원상회복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제

품이나 제품 구입가의 감가 상각한 금액 등 손해 배상 의무가 소비자피해 보상규정과 표준약관(택배)에 명시되어 있다.

현대 택배에서는 유사한 중고품을 보냈지만, 소비자는 동일 새 제품으로 요구하고 있어 파손된 제품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가 60만원 소요되고 새 제품 가격은 70만원이라며 업체 배상 최고 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자동차부품 보유기간이 8년이고 2003년도에 구입한 제품이므로 현 신제품의 가격에 감가 상각한 금액과 업체의 최고한도 50만원과 비슷하여 업체 최고 한도 금액을 소비자 계좌로 입금 조치키로 중재 처리하였다.

성형수술 계약조건대로 시술 안 돼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받고 싶다

내용 이상남(대전시 서구 월평동)씨는 GM 성형외과에서 눈 쌍꺼풀 수술과 마마자국 8곳 제거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비 350만원 지불하였다.

병원 측과 처음 상담 시 눈 위 지방살만 제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지만, 이후 쌍꺼풀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술하였다. 수술 결과, 쌍꺼풀 수술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마마자국 제거수술도 엉뚱한 곳에 하거나 수술해야 할 곳 1군데의 마마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병원에 항의하였더니 재수술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믿을 수 없어 병원비 환급 받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싶다.

처리 병원 측과 합의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시술되지 않은 1곳에 대한 비용 10만원을 환급 처리키로 합의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하려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06년 인터넷 정보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인터넷이 청소년 교육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용자가 30%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종 유해정보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네티즌이 크게 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 78%가 '성인음란물'을 가장 심각한 인터넷 역기능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에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인터넷 음란물 유통실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청소년 유해정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음란물에 대한 문제가 70%를 넘고 있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청소년 10명 중 4명꼴로 인터넷 이용 중 불법 및 유해정보를 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해정보에 접한 계기는 '웹서핑 중 우연히' (35%), '검색엔진' (20%) 등을 통해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음란물, 무엇이 문제일까?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인 정도로 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인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신들이 음란물에서 본 내용을 다른 아이나, 인형, 애완동물을 상대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 실제로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70% 이상이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접하며 충동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음란물은 돈을 벌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성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어서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죄의식 없이 성범죄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몰래 사용하거나 친구들에게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자녀가 음란물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란물을 보는 것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인터넷 음란물을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내용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 많아서 안이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무조건 혼내고 막는 것 보다는 본 경험과 느낌 등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란물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왜 나쁜 것인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모님의 열린 마음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음란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면?

- 평소 성교육을 하여 올바른 '성(性)'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 컴퓨터를 거실 등 가족 공용 공간에 놓고 함께 사용하여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 부모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컴퓨터 외에 다른 취미 활동을 권함으로써 자녀의 컴퓨터 이용 시간을 줄이도록 도와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주지 말아야 하며,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한다.
- 음란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www.singo.or.kr, 02-3415-0112)에 신고한다.

◆ 스팸체커 이용하려면?

스팸체커는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음란스팸 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스팸체커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무료 보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kiscom.or.kr), 스팸체커 홈페이지(spam.kiscom.or.kr)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팝업창 형식의 음란 사이트 광고 삭제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음란사이트가 팝업창 형식으로 생성되고 창을 닫아도 조금 있으면 다시 생겨나는 팝업창 형식의 음란사이트 광고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클릭한다.
2. 임시인터넷 파일 BOX에서 설정버튼을 클릭한다.
3. 설정에서 개체보기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파일이 나타난다.
4. 프로그램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코드베이스와 ID를 복사해 둔다.
5. 코드베이스에 나타난 주소와 팝업창 형식으로 뜬 음란사이트 주소가 일치하는 파일을 찾아 제거하면 된다.
6.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에 regedit.exe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입력하여 regedit를 실행한다.
7. 편집메뉴에서 찾기 또는 Ctrl +F를 입력하여 찾기를 실행한다.
8. 찾기의 찾을 내용에 ID를 입력하고 다음찾기 버튼을 누른다.
9. 일치하는 값마다 Del 키를 입력하여 삭제한다.
10. Regedit를 닫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재실행한다.

(자료제공: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유칼립투스 나뭇잎 하나

3년 전 두 주일 남짓 영국과 포르투갈을 여행하게 되었다. 두 나라 다 초행길이었
고, 동행이 없는 혼자만의 여행이었다. 영어는 다
소 하는 편이었고, 포르투갈어는 단 한 마디로 알
아들지 못했다.

모든 나라는 저마다 특유의 시스템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각각의 문자와 언어를 소통의 기호로
삼고 있는 것 외에, 수많은 표지(sign)를 공유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엔 그 나라의 문자를 쓰고, 그 나
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하더라도, 갖가지 사인이
어떤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다 관습이나
인습 등 보이지 않는 삶의 내밀한 공감대는 그 나
라 민족의 기질과 연관되므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알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르투갈은 나에게 너무도 낯선 이
방이었다. 내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한
마디도 알아들지 못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내가 서툴게 하는 영어를 알아들지 못했다.
건물에 걸려 있는 간판을 읽을 수 없으니 그곳
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었고,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도로 표지마판을 읽을 수 없으니 방
향을 알 수가 없었다. 투숙한 호텔이 그 도시의 어
느 지역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내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밟고 다니는 땅과 돈으로 유통되는
물건들뿐이었다. 나는 그 나라 그 도시가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 밖에서, 나만의 기호에 따라 움직이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내 존재 전체가 하나의 기호였다. 자고 싶으면
자고, 걷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다시 일어나 택시
를 타고 싶으면 택시를 타고……

가야 할 곳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만날 약
속도 일할 약속도 없었고 더불어 말할 사람도 없
었다. 거리에 넘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유명 같
은 존재였고, 나에게 거리로 오가는 그 수많은 사
람들이 모두 유명 같은 존재로 보였다.

서로 상관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내 존
재를 철저히 홀로하게 했다. 외부로부터 구속받거
나 간섭받는 것이 거의 없이, 오직 내 자의(自意)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
침에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리스본의 구시가지
로 가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그저 걷고 또
걷다보니 사오십 리는 족히 걸은 것 같았다.

앓을 만한 의자를 찾던 중 청동 조각상이 있는
드넓은 광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 광장 앞으로는
갯내음을 풍기는 푸른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석
물 의자에 앉아 생수를 한 모금 마시고, 아내 책자
를 펼쳐보았다.

그 광장은 아우구스타 거리의 남쪽 끝에 있는
코메르시우 광장이고, 청동 조각상은 동 조제 1세
이며, 광장 앞의 푸른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테주

강이라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광장의 이름, 조각상의 주인공이 누
구인지 알았다 해도 나에게 달라질 것이 아무것
도 없었다. 광장을 등지고 강을 바라보는 방향이
내게는 훨씬 친근했다.

어떤 말로도 수식되지 않는 '걷고 또 걸음' 만
이 나를 그곳까지 이르게 했다. 내 안에는 세계를
더 깊이 해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
다.

내가 도달한 곳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리
스본 중에서도 구시가지에 있는 코메르시우 광장,
동 조제1세 조각상 앞이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이름 붙일 수 없는 곳, 그저 하늘 아래 대지의 한
귀퉁이일 뿐이었다.

내가 걷고 또 걸어서 만난 것은 아무 낱말로도
이름 붙일 필요가 없는 자연 그 자체였다.

이튿날은 리스본에서 기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신트라(Sintra)란 곳으로 갔다. 바이런이 에덴동산
에 비유한 아름다운 왕궁과 대서양을 한눈에 조
망할 수 있는 페나성(城)과 무어인들이 남긴 성터
가 있는 곳이었다. 여행 안내서를 통해 그 정도만
알고 나서, 책을 덮었다.

기차역을 빠져나와 길이 이끄는 대로 스택스적
걸었다. 가다가 가끔씩 멈춰 서서 조그맣고 소박
하게 꾸며진 진열장 안에 들여다보기도 하고, 가
판대에 진열된 엽서를 구경하기도 했다. 자기 발
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리며 걷다가 문득, 하얀 커

튼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어느 집 창문 아래로
가만히 걸어가 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사람에 의해 복잡하게 구획되고
나누어져서 이름 붙여진 땅을 벗어나, 그냥 순수
한 자연 앞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상점들의 거리를 벗어나 시립공원의 오른쪽으
로 꺾어지면 상타 마리아 교회 앞이 되고, 그곳에
서부터 표지를 따라 3킬로미터 정도 숲속 길을
건다보면, 페나성이 나온다'는 안내말이 있어도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장소적 의미보다
는 목적없이, 지향하는 바 없이, 그저 걷고 또 걸
음으로써 내 안에 물처럼 차오른 어떤 지쳐서 맑
아진 기운, 호흡, 상태였다. 주위는 어느덧 울창한
숲속이었고, 나무들이 떨어뜨린 잎사귀들이 길을
가득 덮고 있었다. 몸을 숨긴 새들이 여기저기서
노래로 화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즈
음, 어디선가 새의 깃털처럼 생긴 나뭇잎 하나가
내 앞으로 살며시 떨어져 내렸다. 사실 그것은 내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소리 없이 지는 나뭇잎 하나가 내
밖을 지나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고, 그림자처럼 가벼운 기미였음에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그 나뭇잎은 누렇게 바랜 노트의 갈피에
끼워져, 실존의 바닥까지 성취되었던 고독과 자유
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서영은/작가>



서영은 선생은 1983년 '먼 그대'로 이상문학상 수상, 1990년 '사다리가 놓
인 창'으로 연암문학상을 수상한 중견작가로, 1943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
났다. 동해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17세 때 시인인 국어
선생의 영향으로 문학 수업을 시작해 23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여행을 하면서 보냈다. 지금까지 45개국 135개 도시를
여행했고, 앞으로 1700km를 걸어서 가는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로 가는 여정을 계획하고 있
다. 취미는 춤추는 것과 낚시 도시의 골목길을 배회하는 것.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규정

200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역시 바뀌는 제도나 규정이 많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주택

▶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구입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거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주택의 내용, 실거래가, 입주계획 등을 담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 기반시설부담금제

7월 12일부터는 연면적 60평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사업자에게는 도로·공원·학교 등을 세우는 데 쓰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10% 인하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 가격평가 방법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노동

▶ 학자금 대출 심사 기준 완화

대학원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 적이 있어야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 19일부터는 학교에 적이 없어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 사립학교법 개정

이사회에서 선임했던 이사의 4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도 교장 임명이 불가. 학교장 임기는 4년 초과가 불가능하고 1회 중임 가능하다.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도입

출산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

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6개월간 최대 60만원씩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교통·환경

▶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였던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이 11월 1일 등록하는 차량부터 흰색 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종전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 7월부터 광주와 대전 등으로 확대된다. 11월에는 울산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된다.

보건·보건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화

종전에는 가사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세무서 신고 외에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 식품 표시기준 강화

9월 8일부터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일부 과자류와 음료류 전 품목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 일부 빙과류에는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한다.

청소년·문화

▶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관람료 부과

현행 18세 이하 무료 규정을 6세 이하로 변경해 7~18세 청소년은 관람료 5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상설전시회 일반 관람료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요건 강화

6월 30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간 취업이 불가하다.

▶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 쌍벌 규정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면 업주만 처벌하던 규정을 바꿔 10월 29일부터 접대부와 알선자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자연휴양림과 등산로 휴식년제 도입

8월 5일부터 자연휴양림과 등산로의 보호와 등반객의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

수돗물 대장균 검출시 주민에 공 개기로 (수돗물 법령 개정)

환경부는 7천개에 이르는 대 규모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에 설치된 옥내 급수관은 준 공 검사 후 5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공포,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수조 청 소가 의무화된 아파트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 1회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 탁도 등 6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받도록 했다.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초과, 대장균 검 출 등의 경우 24시간 내 주민에 게 라디오와 신문 등을 통해 알 려야 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 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은 2008년부터 연 1회 55개 전 체 항목을 검사하고 연 3회 14 개 항목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대공원, 10월부터 무료개방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 원이 오는 10월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서울시는 5일 “현재 요금을 받도록 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 례를 개정해 10월부터 어린이대 공원을 무료로 전면 개방할 계 획”이라며 “녹지가 부족한 강북 지역의 거점공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료화와 함께 현재 오전 5시~오후 10시인 개방시 간도 ‘24시간 개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사육되는 동물 들이 있어 관리 문제에 대한 보 완 조치를 취한 뒤 이르면 10월 개방시간을 늘린다.

무료화와 맞물려 경계 담장도 내년 6월까지 전면 철거된다. 철 거 구간에는 나무를 심거나 목 재 울타리가 설치되고 등(燈)과 관리용 CC(폐쇄회로)TV는 확 충된다. 그러나 대공원 내 놀이 동산과 동물원에는 경계 울타리 가 설치된다.

시는 또 2010년까지 37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어린이대공원을 전면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다.

경차, 고속도 통행료-공영주차료 12월부터 60% 할인

건설교통부는 12일 ‘건설교 통 에너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배기량 800cc 이하 경차의 고속도로 통 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율이 현재 50%에서 60%로 커 진다. 환승주차장 주차료 할인 율은 80%에서 90%로 높아진 다.

또 현재 10부제, 5부제, 요일 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는 ‘차량 부제’는 2010년 까지 요일제로 단일화하고 부제 를 지키는 차량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고속 도로 사업자들과도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병원 빌 딩 등 대형 신축 건물에 대해 에 너지 소비 총량을 정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지붕 단열 두께 110mm 이상’ 등 건축자재 의 규격 등을 정하는 방식에서 ‘연간 소비열량 m²당 140Mcal 이하’처럼 에너지 절약 성능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하철 이용객, 애원견을 전용 상 자에 넣어주세요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광역 전철(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과 쾌적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 해 이달부터 철도공안 및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활동조를 편성,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속 적인 계도·단속·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 다.

‘철도안전법’과 ‘광역철도여 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전철(지하철) 이용객은 무 기류·화약류·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동물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 로 공중 또는 다른 여객에게 불 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전차 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풍선류 등을 휴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애완동물의 경우 소 음·털·냄새·알레르기 등 다 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전용 운반상자 (케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휴대금지품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관련법에 의 해 최고 10만원의 부가금을 물 리거나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유모차와 같이 접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휴대품은 반드시 접어서 휴대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외국의 경우 유모차는 반드시 접어 별도로 휴대하고 승 차하는 것이 생활화 돼 있다.

이밖에 일부 취객이나 내릴 곳을 지나친 승객 등이 운행 중 인 전동차 출입문을 억지로 열 어 전동차를 비상 정차시켜 연 쇠 지연을 일으키거나 객실 내 비상통화장치를 아무런 용무 없 이 조작해 승무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안전운행을 저해시키 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등 지하철 이용객의 선진 화된 안전의식이 절실한 상황이

어서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 로 했다.

저소득층 자연분만·미숙아 진 료 전액지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 행령에 따라 저소득층인 의료급 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 분만으 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 료,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 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전액 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하기 로 했다.

또 조기 출산 및 저(低)체중 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 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 요하고 적기 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점과 가정에서의 육아 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키 로 했다.

한편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 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 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 게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된다. ■

통조림, 개봉 뒤 시간 두고 드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에서 통조림 식품을 먹을 때는 개봉한 뒤 시간을 조금 두고 가능한 조리해서 먹을 것을 권고다.

식약청은 분유와 통조림, 커피 등 식품 178건에 대한 발암우려 물질인 퓨란 실험 결과, 일부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량의 퓨란이 검출됐으며 이같이 밝혔다.

퓨란은 무색의 고휘발성 액체 화합성분으로 탄수화물과 비타민 C 등을 가열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이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우려 물질로 분류했지만 국제 기준은 없다.

식약청은 퓨란이 쉽게 휘발하는 특성이 있어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는 문제는 없지만, 통조림처럼 밀봉된 경우는 일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봉하고 시간이 흐른 뒤 먹거나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검정콩 비만억제 효과 탁월해

검정콩이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12일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팀에 따르면 몸무게 138~139 g 인 실험용 쥐에 30일간 고지방 음식을 먹인 결과, 체중이 287.5 g으로 늘었으나 고지방 음식에 검정콩 분말을 10% 추가해 먹인 쥐의 체중은 254.4 g에 불과했다.

특히 고지방 음식에 검정콩의 껍질에서 메탄올 추출한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을 추가해 먹인 쥐의 체중은 243.6 g으로 저지방 음식을 먹인 쥐(240.3 g)와 비슷한 것으로 측정됐다.

또 장기의 비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주변의 지방 무게도 고지방 음식만 먹인 쥐는 1.5 g이었으나 검정콩 분말을 추가해 고지방 음식을 먹인 쥐는 1.3 g으로 나타났고, 안토시아닌을 추가한 쥐는 1.1 g으로 저지방 음식만 먹인 쥐(1.0 g)와 거의 같았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고지방 음식만 먹인 쥐는 100 g BW당 108.6 g으로 측정된 반면 검정콩 분말을 추가한 쥐는 87.5 g으로 확인됐고, 안토시아닌을 추가한 쥐는 80.3 g으로 저지방 음식만 먹인 쥐(76.5 g)와 유사했다.

박건영 교수는 “검정콩은 그동안 암 발생이나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는데 이번에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치매예방에 효과 있는 명게, 건강 식품으로 개발

알츠하이머병 예방법을 연구해온 일본 도호쿠(東北)대 대학원 농학연구과 미야자와 하루오(宮澤陽夫) 교수(식품학)팀이 동물실험에서 우렁쟁이(명게)와 굴 성게 등에 들어있는 지방질인 프라스마로겐이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세포배양실험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 쥐에게 프라스마로겐을 먹인 후 미로를 거쳐 먹이를 찾아가게 하는 실험을 한 결과 기억·학습 능력 저하가 방지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한 건망증을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은 뇌신경세포의 사망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환자의 뇌에는 프라스마로겐이 정상인보다 30%

정도 감소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야자와 교수는 내년 중 건강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바나나, 다이어트·변비에 효과

바나나가 몸무게를 줄이고 체지방률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며 변비까지 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바나나가 고열량식품으로 변비를 일으킨다는 기존 인식을 뒤집게 되었다.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이복희 교수팀은 과체중 및 변비 증세가 있는 20대 남녀 30명에게 하루 3회씩 20일간 바나나를 먹게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30명을 3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어 각각 하루 3개, 6개, 9개의 바나나를 평소 식단과 병행해 먹게 한 뒤, 몸무게 및 체지방률, 배변 습관 등의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3개 먹은 실험군에서 모두 감량 효과가 있었는데, 바나나를 9개 먹은 실험군이 평균 1.45kg 감량 효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바나나 3개 섭취군은 0.57kg, 6개 섭취군은 0.93kg의

몸무게 감소에 그쳤다.

체지방률 역시 3개 그룹 모두 줄어들었으며, 특히 복부지방 감소율은 바나나 9개 섭취군이 1.15%로 3개 섭취군(0.26%)과 6개 섭취군(0.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배변량이 늘고 배변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등 변비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효과에 대해 이 교수는 “바나나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 섬유질인 ‘펙틴’은 점성이 높아 위장 내 음식물 이동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유도함으로써 체중 감량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변의 질량과 부피를 늘려 장내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변을 보기 쉽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당량 커피, 당뇨병·알코올 해독에 효과있어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이 여성 8만8천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당뇨병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커피를 하루 한 잔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17%, 하루에 4잔을 마

실 경우 당뇨병 위험은 47%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의 한 의료기관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한 잔을 꾸준히 마시면 간경변증 발병 가능성을 2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한다든지 간경화·간암(예방) 등 몸에 이로운 효능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도와 알코올 해독에도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임신한 상태하면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이 유산율과 저체중아 출산율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전문가들은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여성들은 하루에 한 잔의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아기 돌보미' 사업 실시

여성가족부가 야간근무나 집안행사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수요자 부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기 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130명을 양성, 지난 6월 23일부터 울산과 천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사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용 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다. 시간당 요금은 6천원이다.

여성가족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검토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들 두 지역에 전업 주부의 육아 스트레스와 육아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돕는 '육아휴게소'도 함께 개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 노숙인이 낮 동안 지낼 수 있는 '일·문화 카페'를 용산구 서계동 서울역 인근에 열고 여성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장 근무, 남성보다 여성 건강에 더 해롭다

BBC와 로이터 통신 등은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연장 근무와 남성의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전했다.

영국 리브 대학의 대릴 오코너 박사에 따르면, 초과 근무를 하는 여성들은 고지방 고당분 과자

를 많이 먹게 되고, 카페인 섭취도 늘며 흡연자인 경우 남성 동료에 비해 흡연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면 남성 직장인은 근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흡연과 카페인 섭취 그리고 운동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근무 시간이 늘면 남녀 모두에게 음주량은 줄어들게 만든다.

연구팀은 직장 밖의 스트레스(친구와의 논쟁)와 직장 내 스트레스(상사와의 회의, 프리젠테이션 등)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는데, 근무 시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간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들고 식사량을 줄여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와 인터뷰한 랭커스터 대학의 캐리 쿠퍼 교수는 여성들이 '멀티태스킹'의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초과 근무가 더 해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흡연 임신부 아이에게 문제 행동 많아

헬스데이 뉴스는 임신 중 담배를 피운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보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미국과 영국 연구진의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진은 임신 중 산모의 흡연과 공격성 발현 및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등 어린이의 문제행동을 연관시킨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며, 이 연구에서 이런 문제행동이 생후 18개월~24개월 사이에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동발달 7-8월호에 발표된 이 연구는 한 두 살짜리 아이 93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 47%가 임신 중 흡연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산모의 흡연이 태아의 두뇌 중 행동을 규제하는 부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시카고의 일리노이대학 로렌 워크슬라그 연구원은 이 연구가 산모의 흡연이 어린이 문제행동의 원인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원인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말했다.

칼슘보충제, 여성 체중증가 억제 효과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이 아닌 칼슘보충제가 장기적으로 여성의 체중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허친슨 암연구소의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박사는 '당뇨병학회 저널' 7월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칼슘보충제를 하루 500mg 이상 복용하는 중년여성은 칼슘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10년사이의 체중증가를 크게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곤살레스 박사는 53~57세 여성 5천341명과 남성 5천250명을 대상으로 8~12년 전인 45세 때 체중과 비타민, 미네랄 등 38종의 영양보충제 복용 여부, 식품 120여종의 섭취량을 설문조사 한 결과 칼슘보충제를 하루 500mg 이상 복용한 여성은 그 동안의 체중증가가 평균 5.1kg, 칼슘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여성은 6.9kg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음식을 통한 칼슘섭취량은 하루 평균 811mg였으나 음식을 통한 칼슘섭취량만으로는 장기간체중증가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부터 월10만원 아동 수당 지급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모든 가정에 대해 월 10만원 가량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수당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우선 내년부터 5세 이하 영유아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당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는 "아동수당제의 경우 기초생활보조대상자, 저소득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4인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4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 대해 첫째 아이를 제외한 둘째 아이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6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 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또 자녀수를 아파트 분양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주택 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한정하는 것으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평형 구분 없이 주택특별분양 1순위 대상자가 된다. ■

여름철 올바른 식품 보관법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로 식품위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년 내내 식품 위생 안전을 강화해야 하지만, 특히 기온이 높은 5월~9월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함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식품 보관법에 대해 알아본다.

올바른 식품 보관은 식중독 예방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알뜰 살림의 지름길이다.

◆ 곡류

쌀 및 곡류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한다. 쌀통에 보관할 때는 마늘, 숯, 마른 고추 등을 넣어두면 벌레나 곰팡이 발생억제에 도움이 된다.

남은 밥은 한 번에 먹을 양만큼 1~2cm 두께로 랩에 싸서 냉동하면 전자렌지로 해동할 때로 열이 균등하게 퍼져 새로 지은 밥과 같은 맛을 낼 수 있다. 빵이나 떡 등은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육류 · 어류

얇게 썬 고기를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비닐 팩에 넣어 공기를 완전히 빼주는 것이 좋다.

덩어리 고기는 1회 사용량 만큼씩 분리하여 기름을 바르고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도와 맛을 유지할 수 있다.

닭고기를 냉동할 경우에는 소금을 뿌린 뒤 술을 조금 부은 다음 밀폐용기에 담아 넣어 둔다. 냉장할 경우에는 고기 표면에 식용유를 바르고 랩을 씌어두면 3~4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다.

생선은 싱싱하더라도 내장을 제거한 후 배의 내부와 표면을 물로 잘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 후 소금을 뿌리고 배 부분에는 키친 타월을 끼워 둔다. 이것을 한 마리씩 랩으로 싸서 공기와 접촉, 산화되지 않도록 한 후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냉장실에 넣어두면 2일 정도는 보관 가능하다.

오징어 역시 내장을 빼고 껍질을 벗겨 물

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뒤 비닐 팩에 넣어 보관한다.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데친 다음 냉장실에 넣도록 한다.

조개는 곧바로 요리하지 않을 때는 종이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조개는 모래를 토해내면 신선도를 잃게 되므로 될 수 있는 한 구입한 즉시 보관한다. 해감을 토하게 한 것은 소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 채소 · 과일류

양배추는 잎보다 줄기가 먼저 썩어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칼로 줄기를 잘라낸 후 물에 적신 타월을 잘라낸 부분에 넣어 두면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

파는 잘게 썬 것이라면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시킨다. 많은 양의 파를 보관할 때는 물기를 빼서 종이에 둘둘 말아 냉장실에 넣어 둔다.

당근 같은 뿌리채소는 씻지 않는 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때 물기가 있으면 썩게 되므로 물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물로 씻은 것이라면 키친타월로 싸서 비닐팩에 넣어 둔다.

가지는 종이에 싸서 물기를 없앤 후 보관하도록 한다. 특히 가지는 저온을 싫어하기 때문에 2일 정도라면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다른 채소와 닿지 않도록 하나씩 종이에 싸서 비닐 봉지에 넣어 둔다.

바나나는 저온에 약하므로 냉장고에서는 곧 검게 변한다. 실온에서 보관할 때는 종이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둔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속만 비닐 팩에 넣어 냉동실에서 얼려 산뜻한 냉과로 먹으면 좋다.

◆ 유제품 · 유지류 및 가공품

치즈는 냉장실에 오래두면 좋지 않다. 개봉하고 난 후에는 랩으로 싸서 공기와 닿지 않도록 한 후 냉동 보관한다.

버터는 한번 벤 냄새는 결코 빠지지 않으므로 생선류 같이 냄새가 나는 식품과 함께 넣어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버터는 냉장보다 냉동보관이 좋다. 은박지에 싸서 비닐 팩에 밀봉해 넣어두면 맛과 향을 보존할 수 있다.

식용유는 공기 중에 오랫동안 놓아두면 산화되고 일광을 쬌면 산패가 촉진되므로, 식용유를 저장하려면 금속이 아닌 용기에 담아 어둡고 찬 곳에 보관해 공기의 접촉이 없도록 해야 한다.

통조림의 경우 개봉한 후에는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밀봉한 후 냉장보관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먹도록 한다.

〈내용참조: 환경부〉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요리



휴가철. 바다와 산의 매력을 만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여행지에서 음식을 무조건 사먹기 보다는
가족이 함께 간편하게 만들어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알뜰한 휴가를 보내보자.

참치비빔밥

재료 > 밥 3공기,
참치통조림 120g,
깻잎, 오이, 당근,
무순, 적채 등 갖은
야채 적당량, 초고추
장(고추장 4큰술, 설탕 2
큰술, 식초 2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다진파 1작은술, 깨소금·참기름 약간씩)



〈만드는 방법〉

① 참치는 체에 받쳐 기름기를 거른 후 부순다.

※ 참치통조림은 기름기를 뺀 후에 사용해야 느끼한 맛이 없어요!

② 오이, 당근, 적채는 각각 고운 채를 썰어서 찬물에 담아 놓는다. 깻잎도 흐르는 물에 한장씩 씻어서 돌돌 말아 채썬다.

③ 고추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 참기름을 섞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④ 그릇에 밥을 담고 준비한 야채를 가지런히 돌려 담는다.

⑤ 야채 가운데에 참치를 담고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감자고추장찌개

재료 > 감자 3개, 돼지고기 150g, 고기양념(간장 1/2큰술, 소금 1작은술, 생강즙 1/2작은술, 다진 마늘 2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불린 미역 30g, 대파 1대, 풋고추 2개, 붉은 고추 1개, 식용유 1큰술, 물 3컵, 찌개 양념(고추장 3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2작은술)

〈만드는 방법〉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잘라 도톰하게 반달썰기 한 후 찬물에 담가 전분기를 뺀다.

② 돼지고기는 기름기



가 적은 등심이나 목살 부위로 준비하여 얇게 저며 썬 다음 고기양념으로 버무린다.

③ 불린 미역은 3cm 폭으로 썰고, 대파는 어슷 썬다. 고추도 어슷 썬 다음 물에 담가 씨를 털어낸다.

④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익으면 감자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⑤ ④의 감자가 반쯤 익으면 분량의 찌개 양념을 풀어 끓이다가 미역을 넣고 한소끔 끓인다.

⑥ 파와 고추를 넣고 잠시 더 끓이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춘다.

해물파전

재료 > 조갯살 20g, 새우 40g, 오징어 70g, 해물양념(향신즙 1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달걀노른자 1개 분량, 쪽파 50g, 팽이버섯 1/2봉지, 풋고추 1개, 반죽(밀가루 1컵, 참쌀가루 1/4컵, 달걀 1개, 우유 1/2컵, 향신즙 1큰술, 꽃소금 1/2작은술, 물 1/2컵), 향신유 적당량



〈만드는 방법〉

① 해물은 손질해 향신즙과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을 한 다음 10분쯤 두었다가 달걀노른자를 섞는다.

② 쪽파는 씻어서 5~6cm 길이로 자르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자른다. 풋고추는 어슷 썰어 씨를 던진다.

③ 반죽을 만든 후 해물에 2큰술을 넣어 섞고 나머지는 따로 둔다.

④ 프라이팬에 향신유를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얇게 편다. 쪽파, 팽이버섯, 풋고추를 골고루 올리고 해물을 얹어 노릇하게 지진다.

골뱅이 옥수수무침

재료 > 골뱅이 1깡통, 오징어포 100g, 옥수수(깡통에 든것) 100g, 깻잎 8장, 오이 1개, 청·홍고추 1개씩, 양파 1개, 대파 2개, 양념장(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설탕 2큰술, 레몬식초 3큰술, 참기름 1/2작은술, 통깨·후춧가루·소금 약간씩, 청주 2작은술)

〈만드는 방법〉

① 골뱅이는 작은 것으로 골라 건더기만 건져놓는다.

② 오이는 반달썰기하고 양파는 얇게 채썬다. 대파는 5cm 길이로 썰어 파채를 만든다.

③ 청·홍고추도 대파와 같은 길이로 썰고 옥수수는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④ 오징어포는 골뱅이 국물에 20~30분간 담갔다 건지고 물기를 없앤다.

⑤ 깻잎은 돌돌말아 채썬다.

⑥ 양념장은 분량의 재료들을 섞어 미리 만들어 둔다.

⑦ 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한데 섞어서 양념장을 넣어 매콤 새콤하게 무쳐낸다.





피서지에서 유용한 응급 처치법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피서용품도 중요하지만 각종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 숙지 및 구급약 챙기는 것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응급 처치법을 알아보자.

벌이나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벌에 쏘였을 경우, 독성물질이 온 몸에 퍼지므로 절대 피부를 문지르거나 긁어서는 안 된다. 살갓에 박혀 있는 벌침을 손톱이나 핀셋으로 빼면 독주머니에 있던 독액이 일시에 피부 속으로 흡수되므로 일단 벌침은 신용카드나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 옆으로 쓸 듯이 털어내는 것이 좋다. 이후 냉찜질이나 진통 소염제 등을 바르고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으면 복용한다.

바닷가에서는 해파리를 조심해야 한다.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소금물이나 바닷물을 이용해 환부를 깨끗이 씻어낸 후 베이킹파우더를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들어 바르면 독성 제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암모니아수를 발라주거나 2%~5%의 소다수를 적신 거즈를 대주는 것도 좋다.

이외 호흡곤란 증세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경우

칼로 베이거나 피부가 찢어진 경우에는 먼저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소독약으로 상처 주변을 소독한 뒤 깨끗한 수건이나 가제로 감싼 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상처 내부에 연고나 소독약을 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 실익도 없이 통증을 가중시키고 상처 치유를 더디게 하기 때문이다.

상처가 1cm 이내인 경우는 소독한 후에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압박한 다음 반창고를 붙이면 된다.

만약 피가 박동 치듯이 쿵쿵 나는 경우 동맥 손상일 가능성이 큰 만큼 상처 부위보다

3cm정도 위쪽을 압박붕대나 손수건 등으로 묶어 지혈하고,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킨 채로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해야 한다.

뼈·관절을 다친 경우

목이나 팔·다리 뼈가 부러졌다고 의심될 때는 '상처부위를 못 움직이게 고정시키고 → 차게 하고 → 출혈이 있다면 부위를 압박하고 →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응급 처치법을 시행해야 한다.

환자를 구조한다고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지 않고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엮으면 하지마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므로 반드시 환자 몸을 고정시킨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고정을 위해 부목을 댈 때는 골절된 부위를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관절을 고정시켜야 한다. 무리하게 골절 부위를 펴 필요는 없다. 뼈가 구부러져 있다면 구부러진 상태로 부목을 대는 것이 좋다. 응급처치용 부목이 없다면 골판지, 나무판자, 잡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햇볕에 있다가 쓰러진 경우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무리하게 일이나 활동을 한 경우 구토, 메스꺼움, 두통,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노약자·어린이·만성질환자에서 이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

러진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다리를 높여 준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열이 올라가면 열사병과 같은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만큼 찬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덮어주고 얼음찜질을 계속해 체온을 낮춰 주면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물에 빠져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을 때는 물을 토하게 하는 것보다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호흡이 없는 경우는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한 손을 이마 위에 놓고 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기울이면서 머리를 기울게 하는 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환자의 코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턱을 들어 인공호흡을 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 가슴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환기가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로 부적절한 기도 유지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유지를 다시 한 다음, 두 번 정도(한 호흡 당 1~1.5초) 공기를 불어 넣어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구급상자에 넣어야 할 것들

의료용 가위, 핀셋, 탈지면과 면봉, 붕대(탄력붕대, 넓은 붕대 등), 거즈, 일회용 반창고, 머큐로크롬, 소독용 과산화수소용액, 항생제연고,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해열제, 정장제, 멸미 방지약, 습포제 등



잘 갔다 온 단 한번의 여행, 세계일주 부럽지 않다

— 내게 맞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선택 노하우 —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행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휴가철이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더더욱 믿을 수 있는 여행사와 실속 있는 여행상품의 고르고 싶을 것이다. 다음에 내게 맞는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잘 고르는 요령을 소개한다.

마음먹고 간 여행. 돈도 돈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지워지지 않는 쓸쓸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행사와 여행상품만 잘 골라도 여행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여행사 선택할 때

고객 불만사항 처리 능력과 보증보험(공제보험) 가입 여부 확인

현재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여행사의 수는 8천여 개에 이른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여행사들은 아무래도 여행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항공 좌석 확보, 사고 처리 등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반면, 단골 고객 관리가 생명일 수밖에 없는 미니 여행사는 세심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사 규모가 반드시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사를 고를 때는 어느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가격에만 의존해 여행사를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기 십상이다.

여행사 홈페이지의 고객 게시판을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고객 게시판의 칭찬보다 불만 사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특히 어떤 불만이 발생했는가 보다는 소비자의 불만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일단 마음에 드는 몇몇 여행사를 골랐다면 여행사별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 이벤트가 산발적으로 펼쳐지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짚해 둔 여행사 몇 군데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정직한 여행사를 고른다.

모든 여행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는 여행사의 부도나 여행 중의 사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한국일반여행업협회나 각 지역별 관광협회에 가입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좋다.

또 현행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공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은 의무적으로 상품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가 이외의 추가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일정표를 볼 때는 상품별로 추가 경비 유무 및 내역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여행사 직원이 이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거나 숨기려 하면 과감히 다른 여행사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여행상품 선택하고, 다른 여행사의 상품과도 비교해야

신문 광고란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수많은 여행사 상품 광고를 보고 내게 맞는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선택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여행상품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한다.

패키지 여행은 저렴하고 편리하지만 짜여진 일정에 맞춰 단체 행동을 해야 하고, 개별 여행은 자유롭지만 경비 부담이 크며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행사가 제시한 여행상품의 가격에 포함된 내

용은 무엇이고 빠진 내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한다.

같은 일정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항공기에 따라, 호텔과 객실 등급에 따라, 세금 포함 여부에 따라, 음식 종류에 따라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또 기본적으로 상품가에 포함시켜야 할 이들을 요소를 고의로 제외시켜 상품가를 낮춘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제외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와 상품가 이외의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판매 여행사는 다르지만 일정이 비슷한 몇 가지 상품을 비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포함 사항과 불포함 사항을 따져보는 것이다.

여행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가족 여행의 경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단순한 위탁수준에서 벗어나 영어 공부, 레크레이션 등 알찬 스케줄이 갖춰져 있어 편안하게 대부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도 있다.

또 패키지의 어린이 적용 대상 상품은 성인 가격 대비 15~20% 가까이 저렴하므로 자녀의 나이가 12세 미만이라면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효도여행을 생각하는 경우 더욱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부모님의 연령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에게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루트는 피하도록 하고, 현지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정식이 2번 이상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내용참조: 한국소비자보호원)

오만과 편견

이 글은 지난 7월 19일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서울여성 독후감대회’에서 본회 서울특별시지부 양천구지회 김은주 회장이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대한 독후감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최근 영화 ‘오만과 편견’의 인기로 힘입어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은 다시 베스트 셀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몇 년전에는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으로 각색한 ‘브리짓존스의 다이어리’가 대성공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1800년대의 이 소설이 아직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 주인공이 상류층 남 주인공과 결혼하게 된다는 전체적 줄거리를 언뜻 보기에는 단지 옛 귀족사회에서의 신데렐라 식의 이야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큰 오산이다.

‘오만과 편견’이 신데렐라 식의 이야기와 다른 것은 바로 제인 오스틴이 만들어낸 여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캐릭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에서 미혼 여자는 그저 한껏 자신을 포장하여 사교계에서 상류층에게 선택 받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런 세속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녀만의 풍자적 지성과 예리한 비판으로 자신만의 결혼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 그녀 집안의 재산 상속권을 갖고 있는 콜린스의 청혼을 이미 거절한 그녀에게 대지주 다아

시의 오만은 냉소를 일으킨다. 전형적인 상류층의 오만을 갖고 있는 다아시의 청혼으로 엘리자베스는 잠시 혼란에 쌓이지만 그의 오만한 청혼도 역시 거절해버린다. 바로 이런 엘리자베스의 가치관은 제인 오스틴 생애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였던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높임과 동시에 네 동생들과 부모님의 미래까지도 보장하는 청혼을 그 당시 어떤 여성이라도 흔쾌히 승락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자기보다 신분이 낮다든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든가 좋아하면서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이를 거부하게 만든다든가’ 등의 다아시의 여전히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중요시 여겼다.

결국 다아시와 결혼에 이르지만 단지 결론이 신데렐라와 비슷하다고 해서 신데렐라 류의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엘리자베스의 분별력있는 가치관과 비판적 지성이 다아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녀의 다아시의 오만에 대한 솔직하고도 대담한 언변은 다아시로 하여금 자신의 오만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자신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층의 집안인 엘리자베스

를 기꺼이 남몰래 돕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자신의 오만을 깨닫거나 버리지 못했던 다아시가 비판적 통찰력을 지닌 한 여성의 힘으로 변화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소설을 그저 무기력하고 착하기만 한 신데렐라 스토리와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힘이 19세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도약을 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소설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대학입시에서 교육대나 사범대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익숙한 뉴스이다. 특히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여학생들이 많아 그 이유를 조사해보면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이 말속에는 미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학생들에게 좀 더 높은 연봉의 직업을 원하지 않느냐고 자세히 물어보게 되면 ‘여성의 직업으로는 높은 연봉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 낫다고 들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여학생들 스스로 가정과 육아가 대부분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남성의 사고가 그러하므로 흔히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여성의 능력은 많은 일자리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가사도 공동분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높은 직업 진출률을 본다면 여성들의 자아 인식에 대한 교육은 이제 충분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그러나 그 여성들이 택한 직업이 남성의 사고 틀 안에서 골라진 것이라면 이는 진정한 여성들의 자아 발전이라 말할 수 없다. 소설 ‘오만과 편견’이 오늘날 우리 여성들의 일상이나 여성들의 취업률과는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느 부분에서는 남성의 사고에서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자아 인식에 관해서는 많이 다르

지 않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여성들이 코르셋을 조이는 것이나 오늘날 여성들이 결혼이나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발상은 동일한 맥락이다. 오늘날 여성 모두들 자신은 엘리자베스와 같은 통찰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의 굴레,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설 속의 엘리자베스가 이러한 사회 통념에 억압되지 않았듯이, 또한 제인 오스틴이 그녀의 세속적인 시대 가치관 속에서도 비판적이고 획기적인 사고로 소설 ‘오만과 편견’을 집필했듯이 여성의 사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제도와 사회의 굴레는 점차 벗을 수 있다.

서커스에서 덩치가 산만한 코리끼들이 허술한 서커스장을 탈출하지 않는 이유를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강한 쇠사슬로 묶여놓아 처음에는 반항을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에 익숙해 쇠사슬에 묶지 않아도 탈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천막 따위는 쉽게 건어버리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안 된다는 생각, 자신을 매어놓은 굴레를 벗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한다. 아직 여성들의 완전한 자아 실현을 위한 제도는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커스장의 코끼리처럼 이 굴레에 체념해 버린다면 자신 내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지 못할 것이며, 그 굴레를 충분히 벗어 버릴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도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더 이상 사회가 이끄는 대로가 아닌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처럼 사회 편견을 가볍게 무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의 코끼리 같은 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뜸새

이혜경 著/ 창비 출판사



『뜸새』는 중견 작가 이혜경의 세 번째 소설집이다. 이혜경은 20여년 동안의 작가 생활을 통해서 시류와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삶의 비루함과 인간의 하찮음을 애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는 진지한 소설가이다. 삶과 문학에 관한 그의 진지함은 이 책에서도 확인된다. 이 책에 담겨있는 9편의 단편들은 우리 현실의 이런저런 속내를 모자이크 식으로 보여준다. 임신한 것처럼 속여야만 하는 불임 여성, 대형마트의 보안 요원, 초라한 독신 여성, 여행 가이드,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여러 장삼이사들이 소설의 주인공이며, 이들이 처한 상황과 고뇌는 그대로 우리 사회의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힌 보편적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혜경의 소설적 카메라는 화려한 광고 사진을 찍는 고화질 카메라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장면들을 몰래 담아내는 폐쇄회로 카메라에 가깝다.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는 일은 소설적 카메라에 잡힌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일과 같다. 그 일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정직과 통찰의 힘이고,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사찰이야기

서문성 엮음/ 미래문화사



그 자체 행복한 것, 그 자체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것을 하느님이라 부르든 부처님이라 부르든, 아니면 '참나'라 부르든 바로 순일한 그 무엇을 느끼는 일, 절대 순수를 만나 순수해지는 일이다. 그러나 세속에 사는 우리는 언제나 순수할 수가 없다. 순수해지기 위해 도시를 떠날 수도 없고 속세를 버릴

수도 없다. 산으로 들어가 산이 되기는 더더욱 힘들다. 그저 우왕좌왕, 좌충우돌, 동분서주하게 만드는 이 산만하고 황량한 도시에 살면서 세상의 아픈 존재들을 어머니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찾아 산에 오르고 절집을 찾아다닐 수밖에. '한국 불교 설화를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상원사, 월정사, 오세암, 보리암 등 산 좋고 물 좋은 데 위치한 절집들을 찾아가 그 절집에 내려오는 연기설화(緣起說話)를 모은 것이다. 설화는 민초들의 마음들이 모여 만든 이야기가 아닌, 그냥 절집을 기웃거릴 때와 설화의 맛을 씹으며 절집을 드나들 때는 확실히 다르다. 〈추천위원 : 이주향(수원대 교양학부 교수)〉

어린이를 위한 배려

한상복 원작, 전지은 글, 김성진 그림/ 위즈덤하우스



이 책은 『배려』의 어린이판으로, 예나의 성장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배경과 인물, 시점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전개하고 있어 아이들이 읽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 주인공 예나는 학교에서 언제나 1등을 하고 남보다 자기를 먼저 챙기는 아이다.

어느 날 잘난 체 하기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던 예나가 전교 회장에서 떨어지고 바른생활부장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비로소 주변 친구들과 서로 도와가며 멋지고 당당하게 변해간다. 바른생활부장이 된 예나가 어떻게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며 인격적으로 성장하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이 책을 펼쳐보기 바란다. 이 책은 학교생활을 배경으로 친구 관계, 왕따 문제, 이성 친구 문제 등 아이들이 실제 부딪히는 문제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 아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핵가족화로 인해 자각이 개입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아이로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주인공 예나의 변화된 모습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본다.

〈추천위원 : 김자연(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4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건강 기능식품 교육

시지부

과열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행성 판매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시지부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6월 9일 기장군청에서, 6월 12일에는 시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식사대용 식품이 아니라 일상의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임을 강조하며 올바른



건강기능 식품 선택법을 알려주었다.

'2006 부산여성대회' 참석

시지부

6월 13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2006 부산여성대회'가 개최됐다. 본회 회원 및 부산의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다짐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사회 구현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대구광역시지부

'2006 대구음식박람회'참여

시지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EXCO가 주관하는 「2006 대구음식박람회」와 「제6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 6월 8일~11일 4일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구음식박람회는 품격 높은 우리음식 세계 속의 건강음식을 주제로 15개 기관 및 단체에서 500여 품목을 출품하여 전시회가 펼쳐졌고, 대구

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손씻기 캠페인 홍보관에 소비자 위생 감시원 모니터로 활동하는 회원 20명이 참여해 행사 안내 및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교육

시지부

6월 9일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노인 및 주부 150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후원으로 김병숙 교수가 초빙되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법 및 소비자 피해예방법 등을 소개했다.

워터투어

시지부

6월 23일 상반기 서포터즈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 46명이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관리단과 산림과학박물관



및 도산서원 견학을 통해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서포터즈 교육 수료

시지부

「서포터즈 활동으로 제2의 인생찾기」라는 주제로 실시된 서포터즈 교육이 지난 4월 14일부터 12주동안 진행되어 6월 30일 교육을 수료했다. 웰빙으로 행복찾기, 생활건강과 기공, 의사소통기법 및 소비자 상담 기법, 비즈, 풍선아트배우기 등 기능위주의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장소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지부

엄마와 함께하는 농촌체험학습

시지부

6월 20일 유치원생 및 회원 40명이 강화 용두레 마을을 방문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농촌 생활을 체험했다. 용두레 체험을 한 후 강화 갯벌에서 게, 조개 등 각종 해양생물의 생태 관찰 및 떡 매치기 등으로 농촌 주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농촌사랑운동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 교육

시지부

6월 22일 석 바위 여성 복지관에서 노인과 주부 및 회원 57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유사 건강기능 식품과의 차이점을 비롯해 구입 및 복용시 주의사항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단합대회

시지부

6월 29일 강화 문수산으로 회원 간 화합과 결속 강화를 위해 등산을 하면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원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질 함양에 힘

쓸 것을 다짐했다.

봉사활동 및 단합대회

남구지회

6월 20일 회원 20명이 주안 5동 사무소에서 주변 청소를 실시해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23에는 회원 30명이 오대산으로 등산을 하면서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바자회 및 워크샵 참여

서구지회

6월 10일 가좌동 홈플러스에서 회원들이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했다. 12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미지 워크샵’에서는 좋은 인상을 가진 얼굴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기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2일~23일에는 강원도 철원 고성정에서 열린 여협 워크샵에 참여해 여성 지위향상 도모와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봉사활동

계양구지회, 연수구지회, 남동구지회

계양구지회는 6월 1일 회원 12명이 노인 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을

대접하며 이웃의 정을 전했다.

연수구지회는 6월 23일 연수구2동 사무소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남동구지회는 6월 3일 회원 13명이 장애인 자립장을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0일에는 회원 12명이 환경보존을 위해 수질검사와 쓰레기 줍기 등을 실시해 하천 살리기 운동에 앞장섰다. 또 매주 월~금요일 회원 19명이 중앙 길 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공해 비누 만들기

강화지회

6월 23일 회원 17명이 강화 노인복지회관에서 식당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모아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회원들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광역시지부

축산물소비촉진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두 캠페인 전개

시지부

6월 5일 회원 25명이 장동로터리를 출발해 노동청사거리, 동구청 정문앞을 지나 지부 사무실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건전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친환경 축산농가 현장 견학

시지부

6월 7일 회원 45명이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위치한 후산농원을 비롯한 인근 축산 농가를 방문해 축산업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직거래 구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부부 행복 도와주기’ 행사

시지부

6월 23일~24일 금호 화순 리조트에서 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행복 도와주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건전한 사회는 올바른 부부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부부간 신뢰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하고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올바른 부모상을 제시 하는 등 성숙한 부부관계 재정립을 위한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자동차 정비업소 실태 및 소모품 조사

시지부

6월 1일~5일까지 대전시 소재 자동차 정비업소 10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정비견적서 교부여부 오 정비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소모품에 대한 부품비와 공임비를 조사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농가 견학

시지부

지난 6월 2일 임원 및 회원 45명이 논산에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2곳을 방문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 유통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우수성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농촌발전에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인식확산’ 교육 시지부

6월 8일, 20일 삼천초등학교와 흥통초등학교의 6학년 1학급생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환



경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 요령을 비롯해 남은 음식물 재활용 방법 등을 알려 주고, 무엇보다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습관 및 실천을 통해 환경 사랑을 생활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지부

‘환경 한마당’ 행사 참여

시지부

6월 2일 제1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환경 한마당’ 행사에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본회가 전개하고 있는 환경청소년 탐사대 활동, 환경교육, 환경시설 견학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폐현수막을 이용해 만든 시장바구니를 무상으로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어린이 농촌 견학 및 체험 실시 시지부

6월 9일과 24일 어린이와 회원 80명이 울주군, 북구에 위치한 농장을 방문해 자연과 어울어져 살고 있는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왔다. 무농약 오리쌀 재배지에서 오리 넣기 체험, 감자를 비롯한 다양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재배과정을 직접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청소년환경탐사대 및 자원봉사단 활동

시지부

6월 10일 태화강에서 청소년탐사대원과 봉사단 대원 및 회원 80여명



이 3개조로 나뉘어 수질시료 채취, 수서생물 종류 및 개체수 조사활동을 실시했고 주변 정화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축산물 관련 교육 및 친환경 축산 농가와 가공장 견학

시지부

6월 12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주부 및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회원 45명이 친환경 유정난 가공장과 두서 신우목장 및 가공장 견학을 실시해 친환경 축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도·농간 유기적 관계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기로 했다.



건강진단(체지방 분석) 실시

시지부

6월 14일 주부교실 교육장에서 회원 50명이 건강관리공단 울산지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진단을 받으

며 식사요법과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았다.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 활동

시지부

6월 17일~20일 회원 100명이 '제3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중앙여고 체육관에서 배구 서포터즈 활동을 전개했고, 태화고수부지에서 펼쳐진 '제1회 태화강 물 축제'에 참여해 도토리묵을 나누어 주는 등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심폐술 교육 실시

시지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도 중요하

다. 이에 6월 21일 교육장에서 심폐술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회원 50이 심폐술 요령 및 자세 등의 교육 및 실습을 받으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여성자전거교실 수료증 수여 시지부

6월 26일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매월 월~금요일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교실에서 이론 교육 및 실기 실습을 이수한 회원들에게 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환경사랑! 시각장애인과 함께 시지부

6월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는 하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라는 주제로 '자전거와 함께해요 환경사랑! 시각장애인과 함께' 행사를 개최했다.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2인용 자전거를 구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전거를 타며 서로

의 벽을 허물어 인간 사랑과 함께 환경사랑 실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기도지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 배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도지부

6월 19일 경기도 여성회관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교육하며 주부가 자원낭비를 막는 환경보전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산업체 견학 및 소비자 교육

도지부

6월 28일 회원 40명이 경남 거창에 소재한 서울유유 공장을 견학했다. 원유가 가공되어 각종 유제품으로 출시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며 간접 낙농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9일에는 경기도여성회관 강당에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보호원의 장학민 교수로부터 '공산품 품질표시와 소비자 보호'란 주제하에 공산품 품질 인증마크의 종류 및 품질표시 기준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상반기 소비자 교육

용인시지회

6월 19일 용인농협 강당에서 회원 및 일반인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상반기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보호원 강창경 교수와 경기도지부 김순천 국장의 '제조물 책임법 및 리콜제도의 이해'와 '특수 판매'에 대



한 강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 자원 봉사 문화 나눔 한마당」행사 참여

성남시지회

6월 10일 성남시 관내 초·중·고생 1300명이 모인 「청소년 자원 봉사 문화 나눔 한마당」 행사에 생수 100개를 무료 제공하고, 회원 20명이 행사에 쓰일 김밥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강원도지부

에너지 캠페인 전개와 산업체 견학 및 교육

도지부

지난 6월 2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에너지공단 직원과 회원 15명이 함께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했다.

3일에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교육에 회원 7명이 참여해 횡성군 두산 농가집 김치 공장을 방문했다. 철저한 위생으로 만들어지는 김치를 보면서 지난 해 기생충 알 파문으로 갖게 된 김치에 대한 불신 해소와 함께 세계 속의 '한국 김치' 열풍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했다.



외국인 주부와 함께 통일 전망대 탐방

동해시지회

6월 5일 한국인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주부 및 회원 30명이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재인식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비목문화제」 봉사활동

화천군지회

6월 3일~6일까지 '희망의 꽃, 희망의 바람'을 주제로 펼쳐진 비목문화제에 회원 12명이 참여해 칠성전망대 방문객을 위해 보리개떡과 주먹밥을 만들어 무료 제공했다.



「평창군 여성 한마음 대회」 참가

평창군지회

6월 19일 여성단체 회원 700여명이 평창군 대화문화체육에서 '제8회 평창군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여성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위한 활동 결의를 다짐하면서 여성단체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충청북도지부

자전거교육 및 자전거타기 캠페인

도지부

고유가 극복과 함께 환경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6월 26일 청원군에 위치한 미원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했다. 자전거 이용시 보호 장구 착용과 신호등 지키기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후 미원면 공무원과 함께 농협 앞에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친환경 농산물 및 인증 농산물 생산 현장체험

도지부

6월 28일 임원 및 회원 45명이 지동동, 평동, 주중동 등에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방문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채소 재배를 비롯해 떡매치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도·농간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제17기 주부대학 개강식 및 환경정화운동

충주시

6월 8일 한국폴리텍 IV 대학 충주캠퍼스 1층 다기능교육실에서 제17기 주부대학을 개설해 6월 8일~7월 27일 9주 동안 '다시 보는 중원문화'라는 주제로 한국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의 전문 강좌를 개설 운영해 중원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 홍보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2일에는 회원 30명이 충주댐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및 분리수거를 실시해 환경정화운동에 동참했다.



양성평등교육 및 봉사활동 전개 옥천군지회

2006년도 여성단체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사업을 전개하기위해 지난 6월 7일 이원

중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청소년성 교육을 실시했다.

16일에는 회원 11명이 안남에 위치한 과수원을 찾아가 복숭아 봉지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9일 회원 2명이 제11회 '사랑의 점심나누기'에 참가해 급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활동

제천시지회, 괴산군지회, 옥천군지회, 영동군지회

제천시지회는 6월 9일 회원 5명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한나의 집'을 방문해 삼계탕과 과일을 대접한 후 목욕 및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괴산군지회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청천재활원을 회원 4명이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2일에는 회원 10명이 덕평리 삼발 농가를 찾아가 풀 뽑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옥천군지회는 6월 8일 회원 6명이 아동보육시설인 영실애육원을 방문해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동군지회는 6월 19일 회원 4명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도시락나누기행사'에 참여했다.

충청남도지부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가 방문

도지부

6월 13일 임원 및 회원 45명이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또한 직거래 구매를 통해 소비자는 고품질 농산물을 사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자전거타기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계룡시지회

고유가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에 적극 동참코자 6월 15일 계룡시 신도초등학교 전교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교육을 실시했다.

28일에는 소비자단체 회원 및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엄사지구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에서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문제해결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한 자전거 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전거타기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라북도지부

거리질서 캠페인

도지부

6월 12일과 19일 회원 20명이 전주한미은행 앞, 국민은행 앞에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 정지선과 신호등 지키기 등 거리질서 계도 활동을 펼쳤다.

친환경 농산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 현장교육

도지부

6월 17일 회원과 '참다운 어린이집' 원아 40명이 함께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에 위치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인 <하늘내들꽃마을>을 방문했다. 경운기를 타고 마을을 둘러본 후 하우스 감자 캐기, 전통방식으로 가마솥 두부 만들기 등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었던 농촌체험의 기회였다.

소비자상담센터 현판식

완주군지회

6월 14일 소비자 상담의 불모지였던 완주군에 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소비자상담센터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가졌다.



봉사활동

고창군지회, 무주군지회, 순창군

지회

고창군지회는 6월 6일과 13일 회원 10명이 독거노인이 생활하고 계시는 '효도의 집'을 방문해 목욕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7일에는 회원 5명이 고창읍 농장을 방문해 복분자 따기 등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무주군지회는 6월 2일~10일까지 환경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리고 있는 '반딧불축제'에 회원 7명이 참여해 관광객 안내와 음료 제공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순창군지회는 6월 15일 회원 10명이 순창읍 금과면에 위치한 농장을 방문해 배봉지 싸기 일손을 도왔다.

전라남도지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도지부

6월 16일 고유가 극복과 환경사랑을 위해 화순군민회관에서 주부 및 일반인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자전거 이용시 안전규칙 준수 및 정비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6일에는 회원 45명이 화순 국민

은행 사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로 녹색환경을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제11회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도지부

6월 17일 나주시 남산공원에서 환경보전 실천의식 확산을 위한 물사랑 · 자연사랑 ·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제11회 환경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해 참가한 초등학교생 1,500명 중 72명의 학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친환경 농산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 현장교육

도지부

6월 28일 나주세지북초등학교 학생 45명과 함께 세지면에 위치한 메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재배과정 및 가공장을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함께 자연 친화적 삶을 체험할 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기' 교육 순천시지회

6월 13일~14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부와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도 많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복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구례군지회, 장흥군지회, 함평군지회

구례군지회는 6월 23일 회원 20명이 구례군 장애인복지회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의 목욕과 빨래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장흥군지회는 6월 14일 군내 거주하고 계시는 여성 독거노인 50분을 모시고 장흥댐, 보림사, 문학공원을 관람하고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쓸쓸한 말년을 위로해드렸다.

함평군지회는 6월 26일 회원 20명이 군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10분에게 정성껏 준비한 마른반찬을 전달하고 빨래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원자력 발전소 견학 및 회원 단합대회

영광군지회

6월 13일 회원 30명이 생활속에서의 원자력의 활용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받기위해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한 후, 원자력 공원에서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결속 강화를 위한 단합대회를 가졌다.

외국인 가족 부모 되어주기

영암군지회

6월 29일 화순금호리조트 회원 10명이 영암군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가족 부모 되어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과 자매 결연을 맺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핌과 도움을 주기로 했다.

경상북도지부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현장 견학 도지부

6월 7일 칠곡군 기산면에 위치한 송광설중매 농원을 방문해 매실 따기 체험과 선별 작업장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과정을 견학 및 체험학습을 했고, 15일에는 칠곡군 기산면에 위치한 유정란 축산 농가를 방문해 초란 만들기, 계란 포장작업 체험 등을 통해 우리 친환경 농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를 가졌다.

'엄마와 함께 농촌체험' 학습

도지부

6월 26일 구미 현대유치원생 24명,



학부모 16명이 함께 의성군 안계면 교촌마을 교촌농촌체험학교를 방문해 경운기타기, 민물고기생태체험 및 농사체험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모자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

물 사랑 워터투어

울진군지회

지난 6월 8일 회원 2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관리단을 방문해 안동댐 시설을 둘러보며 물 교육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물 절약 생활화 실천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봉사활동 및 캠페인

경주시지회, 영천시지회, 포항시지회, 영주시지회, 예천군지회, 청도군지회

경주시지회는 6월 18일 어려운 생활 속에서 거동조차 못하시며 살고 계시는 안강읍내 독거노인 3가정을

방문해 읍에서 제공하는 물차를 이용해 목욕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25일에는 조실부모하고 병환중인 조부모를 모시며 10리길을 걸어 학교는 다니는 학생에게 자전거를 구입해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영천시지회는 6월 3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위로 성금을 전달했다.

포항시지회는 6월 21일 성모병원 내 마리아집을 찾아가 음식을 대접하며 치매노인 음악치료 및 오락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영주시지회는 6월 8일 휴전동에서 여건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았던 동거부부 5쌍의 합동 결혼식에 축의금과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15일에는 서천폭고에서 휴전 2동까지 회원 전원이 참석해 가정폭력 방지 및 자연보호를 위한 가두 캠페인은 전개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예천군지회는 6월 8일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외국인 여성 교육에 참석해 음료 및 안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청도군지회는 6월 9일 군내 위치한 치매노인병원을 방문해 간식을 대접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청소 봉사활동

동을 전개했다. 18일에는 청도군 주관으로 실시한 '꽃길걷기대회'에 회원 전원이 참여해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했다.

경상남도지부

주부대학 및 부부대학 개강식

도지부

6월 7일 오전10시 주부교실 강당에서 회원 및 관계자 276명이 모인 가운데 6월 7일~9월 26일까지 운영될 제 26기 주부대학 개강식을 개최했고, 오후 7시에는 회원 및 부부대학 입학식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부부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장 견학 및 직거래

도지부

6월 22일 회원 48명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인 창녕군 대지면, 영산면 동리, 대합면 모전리에 위치한 3개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을 체험하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후 직거래 구입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환경정화운동

밀양시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밀양시 긴늘 송림 유원지 일대에서 전개된 환경대청결운동에 회원 50여명이 동참했다.



제주도지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

도지부

지난 6월 7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철저한 분리배출을 위한 생활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제17회 탐라합창제' 참가

도지부

6월 27일~28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 '제17회 탐라합창제'에 본 도지부의 한소리합창단 회원 30명이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바로잡습니다 ●

월간 "주부교실" 6월호에 실린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제목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하는 소비자 87.4%'를 '친환경농산물 표시 인지도 매우 낮아'로 정정합니다.

● 주부교실게시판 ●

주부대학 · 주부대학원 방학

본회(중앙회)가 주부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6개월 과정의 주부대학과 1년 과정의 주부대학원이 다음과 같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 주부대학 : 방학기간 - 06. 7. 27 ~ 9. 3
개 강 일 - 06. 9. 4(월요일) 10:30
- 주부대학원 : 방학기간 - 06. 7. 21 ~ 9. 6
개 강 일 - 06. 9. 7(목요일) 10:30
- 등산반 : 05. 7. 27 ~ 9. 15
- 합창반 : 05. 7. 24 ~ 8. 28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화 : (02) 2273- 2485, 6300 (02) 2266-5870
- FAX : (02) 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수상을 축하합니다 ◆

■ 제11회 여성주간을 맞아 7월 5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1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발전에 앞장서 온 공로로 본회 한순희 대전광역시지부 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경상남도지부 이인숙 회장과 인천연수

구지회 양경순 회장이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 7월 7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 주최로 열린 '제3회 서울사랑 시민상(여성부문) 시상식 및 제11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로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보

섭 관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3회 서울여성 독후감대회'에서 본회 서울특별시지부 양천구지회 김은주 회장이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대한 독후감으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7월 19일 여성플라자아트홀에서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갖는다.